

## 복합쇼핑몰·특급호텔...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속도 낸다

공공기여금 5899억 분납 확정  
개발사업 이행 안전장치 마련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광주시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더현대 광주' 건립 사업이 공공기여금 6000억원 납부 시기와 비율이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동안 공공기여금 납부와 '교통난 쟁점'에 발목 잡혔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6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30만㎡)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 계획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 주거복합시설,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심의안에는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를 비롯해 49층 규모의 특급 호텔과 랜드마크 타워, 4186기구의 주상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심의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공공기여금 5899억원의 분납 시기, 특급호텔이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 건립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 2899억원, 현금 3000억원으로 납부한다.

현물은 도로, 공원, 1130억원을 투입할 상생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또 특급호텔이 들어서는 랜드마크 타워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받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셈이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

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곳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독한 장마' 최대 120mm 쏟아진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새벽 광주와 전남(여수, 광양, 거문도·초도 제외)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30~100mm의 비가 내린 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19일 새벽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한반도 북쪽 기압 때문에 건조공기가 대거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있어 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19일 늦은 오후 잠시 멎었다가 20일 오전 다시 시작해 20~60mm 가량 내릴 전망이다. 이 비는 20일 오후부터 차차 그쳐 21일까지 흐린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장맛비에도 광주·전남 지역은 최고제강온도가 32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다. 19일 낮 최고기온은 28~31도, 20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까지 치솟겠다. 장맛비가 멈추는 21일 오후에는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예상되고,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의 침수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팀코리아'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팀코리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앞두고 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에는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지

리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18일 외신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사(EDU II)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한 한수원은 발주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각 1.2GW 이하)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해왔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단지 두 곳에서 각각 4기, 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4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체코 정부는 향후 테멜린 지역 2기(3·4호기)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 당국은 추후 테멜린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결정하기로 했다.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사실상 신규 원전 2기를 수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 영터리 행정 전기차 충전시설 무산 ▶7면

복스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14·15면

'2위 천적' KIA의 믿음 야구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관광 상품 세계화, 글로벌 매력도시 도약

# 2024~2026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

Jeonnam Tourism, Meet for Deep Korea

**5대 로컬 관광자원 세계화**

한국의 매력을 품은 **남도 축제**  
동일한 테마의 해외 축제와 교류

K-food의 본가 **남도 미식**  
주류페스타, 미식 투어

세계인이 주목한 **남도 웰니스**  
천년사찰, 산림·해양치유, 웰레깅

한국문화의 중심 **남도 K컬처**  
남도소리, 고막·종가, 세계유산·수목

한국인의 고향 **남도 농산어촌**  
술로시터, 농촌체험마을, 민간정원

전라남도 JEONNAM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Jeonnam Tourism, Meet for Deep Korea